

재일조선인시의 ‘이야기 정체성’(narrative-identity) 연구*

- ‘낙원 모티프’를 중심으로 -

최종환**

Ⅱ 차례 Ⅱ

- I. 재일조선인 시와 이야기
- II. 공화국에서 꽃피는 강원도: 류인성의 시
- III. 대동강에서 출렁이는 제주바다: 고봉전의 시
- IV. ‘민족의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민족’으로

【국문초록】

총련계 재일조선인은 1959년 공화국 측의 1차 귀국 사업에 부응하면서 ‘민족 이야기’에 더욱 집착한다. ‘민족’에 집착해 온 그들이 민족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공화국으로부터 건네진 것이고, 재일본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 측 시의 분명한 창작 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때부터 문예동 시인들은 수령이나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행위에 돌입한다. 지상 낙원인 공화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향의 기억이 선명해졌고, 민족적 정체성도 분명히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 순간 쓰이는 그들 시에서 고향 강원도나 제주도 등에서 노닐던 유년기의 노스탤지어도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20142).

이 연구는 <세계문화과 문화융복합>을 주제로 2015년 5월 23일에 열린 ‘세계문화비교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경상대학교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에 참가하여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과 질의를 해주셨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동포 집단 이데올로기의 외부에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 ‘민족’,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의 원본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진 민족은 공화국 이야기가 선재(先在)해줄 때만 나타나는 민족의 시물라크르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맥락을 신형기가 ‘북한문학론’에서 언급한 ‘이야기론’을 참조하고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이론을 간접 원용하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이야기정체성’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총련계 류인성과 고봉전의 시에 주목하였다. 류인성의 시에서는 공화국 측 이야기를 반복할 때 유년의 장소가 강하게 환기된다.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 강원도는, 공화국의 이야기나 수령의 항일혁명 등의 이야기 속에서만 ‘순수한’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가령 류인성 시에 나타난 “제비” 모티프와 “귀로”의 상상력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던 유년의 강원도로 회귀하려는 시인의 발걸음이 공화국의 낙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과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고봉전 또한 공화국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어린 시절의 눈부신 제주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순수의 자리에서 그가 본 것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처럼 일어나는 공화국의 건설현장이었다. 그는 공화국의 속도전 사업에 헌신할 때 열리게 될 주체조선의 이야기와 수령의 교육전사로 활동하는 동포들의 이야기까지도 반복한다. 이야기가 순환하는 이 순간에 경험되는 그의 ‘민족적 정체성’ 또한 궁극적으로 상기 ‘이야기 정체성’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어 : 이야기 정체성, 이야기, 반복, 재일조선인, 민족, 디아스포라문학, 낙원 모티프

I. 재일조선인 시와 이야기

해방 후 재일조선인들이 이전과 유사한 표박을 계속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구권이 몰락하던 80년대 말까지도 차별에 노출돼 온 그들 앞에는 민족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하는 큰 과제가 여전히 던져져 있었다. 그 이전부터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문예동) 소속 시인들의 시가 공화국 이념에 강하게 종속돼 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이란 일단 ‘조선’의 주체성을 뜻했다. 해방 후부터 ‘재일본문학예술

가동맹'에 소속돼 온 총련 시인들이 민족을 조선어로만 스토리텔링해 나갔던 이유도 조선의 순결한 신체를 찾기 위함이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 작업은 민족의 '무구성'을 글쓰기로 확인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공화국의 것이었다. 이때 조선의 정체성을 아무리 주체적으로 묘사해도 거기서 만난 것은 주체의 조국이었다. 그들은 1959년 1차 북송 사업 이후 북측의 민족 서사를 경험한다. 종전까지 '민족'에 주목해 온 그들은 공화국의 '민족 이야기'를 경청해가며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때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공화국의 낙원 모티프를 통해 전개되면서 민족에 대한 그들의 종전 관점은 정향된다. '이야기'의 힘은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민족 이야기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옮겨 놓았다. 여기서 종전의 민족 정체성은 선명해졌다가 다시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그런 방식의 민족 이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떤 반복이 주는 '진리 효과' 때문이었다.¹⁾ 가령 민족 이야기를 반복하는 순간만큼은 태어난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공화국이 고향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더욱이 그 반복 행위가 다시 반복되면서 그 느낌은 분명한 것으로 경험됐다. 민족 이야기를 끝없이 회전시킴으로써 '원현실'을 추상하고, 민족을 그 이야기의 가상 속에서 만났던 이 맥락은 신형기 등이 말한 북한문학의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²⁾

1) 흡스봄에 따르면 '이야기'는 그것이 설사 환상이라 하더라도, 반복할 때 그 사실성이 확증된다., 에릭 흡스봄,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2004, p.25.

2) '민족'을 '이야기 신화'적 맥락으로 보고 있는 신형기의 북한문학론은 총련계 재일조선인 시 분석에도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다. 민족의 온전한 신체를 꿈꾸는 자들이 '민족의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이야기의 민족'을 만나게 되는 문예동 문학의 정황이 그 논리와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디아스포라적 맥락에서 전유된다는 점에서 신형기의 관점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차이는 본 논문의 전개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신형기의 상기적 시각은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당대비평』13, 생각의나무, 2000.12, pp.189-200.;

상기 맥락과 관련하여 이 연구가 말하는 ‘이야기 정체성’은 재일조선시인이 확신해마지 않아 온 고향이나 민족의 정체성이 결국 ‘이야기의 신체’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야기 정체성”은 리코르(P·Ricoeur)의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글에서는 데리다(J·Derrida)의 “대리보충”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했다. 재일조선시인들에게 ‘민족이야기’는, 민족의 이야기-사본이 원본으로 드러나는 자리이다. 민족 이야기가 민족을 ‘대리보충해 주는’(대신 나타나게 해주는) 기제라면, 그들에게 민족-원본은 그 민족-사본 없이는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³⁾ 민족의 신체는, ‘민족 이야기’→‘민족’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경험되는 잔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문예동 시인들에게 이 이야기 작동의 엔진은 공화국의 것이었다. 이때 원본으로서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던 ‘민족 정체성’은 -그 지시사로서- ‘민족 이야기’ 안에서 발견된다. 이때 민족은 ‘민족’ 이야기보다 민족 ‘이야기’의 자리에 위치한다.

이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지속돼 온 표박의 불안을 떨쳐버려 했던 총련

『서사적 구축을 넘어서』, 『문화과학』27, 문화과학사, 2001.9, pp.113-129. ; 『이야기의 역능과 김일성』, 『현대문학의 연구』41, 2010, pp.289-323을 참조하고 있다. 김철의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상허학회, 『상허학보』17, 2006.6, pp.151-169와 같은 논구도 이 연구의 참조점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갱생(更生)의 도(道) 혹은 미로(迷路)-최현배의 『朝鮮民族更生의 道』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28, 2005는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민족 노스텔지어가 이야기를 통해 구성되는 논리를 사유하게 하는 탐침이 된다. 이 논문에서 김철은 최현배의 미봉책적인 민족 만들기(또는 민족 갱생)의 작업이 미로(迷路)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언급한다. 고유하며 영원하다고 상상되는 민족의 정수를 최현배가 ‘고향’이나 ‘농촌’같은 관념적 가공물을 통해 발견하려 했다는 것이다(p.334). 갱생되는 민족은 최현배의 이 기만이 사후적으로 생산한 관념-장소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문예동 문인들에게 다가온 고향의 노스텔지어가, 무오류성과 고유함을 지향하는 주체사상의 관념 서사에 촉발되는 과정과도 유사하다.

3) 이 글이 원용하는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논’의 관련해서는 김상환, 『데리다의 글쓰기와 들뢰즈의 사건: 구조주의 수용의 두 양상』, 『기호학연구』29, 2011, p.18, 41 참조.

계 시인들이 자신이 상상하는 민족 이야기에 집착하려 했고 그 이야기의 물줄기가 공화국으로부터 기시했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민단과 손잡지 않은 이상 그들이 그 낙원의 에너지를 발견한 곳은 공화국/한겨레의 담론망이었다. 때문에 그들이 민족의 기억이라 믿었던 것은 공화국의 민족 이야기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의 '자기-피드백'이었을 공산이 크다.⁴⁾ 라캉(J.Lacan)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순간 다가오는 '민족'은 그들에게 '너무 늦게 오거나 너무 빨리 도착하는 어떤 맹점(blind-spot)'과 같은 것이었기에, 민족은 자이니치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만으로 지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 문학은 그 두려운 맹점을 메우기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공화국의 민족 담론은 서정적인 민족 텍스트를 그들에게 공급했다.⁵⁾ 이데올로기적 향일성이 가미된 공화국의 민족 담론 위에 그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민족을 증강시켰다. 민족의 이 과잉서사가 그 맹점을 덮어가면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구성해나갔던 것이다. 잡히지 않는 민족의 신체는 그 이야기의 순환 과정 속에 포획되고, 이때 이야기는

4) 총련계 재일조선인 시에 나타난 '민족'의 자기준거적 발화 및 그와 연계된 반복 충동 등과 관련해서는 최종환·김종희, 『현대 자이니치 미디어에 나타난 민족담론의 한 가능성: 한흙(大地)』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36집, 한중인문학회, 2012, 8, 2-3장 참조.

5) 특히 1980년대 초부터 북한 시/가사문학은 서정성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서정성의 강화는 수령이 영도하는 향일적 민족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맥락이 문예동에도 피드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피드백은 공화국 교시에 대한 열렬한 수용을 독려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민족으로 다가가는 맥락으로 문예동 시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문학에서도 1982년에 서정성을 강화하고 시문학의 특성을 백방으로 살릴데 대한 당이 독창적인 시문학리론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특히 가사문학에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명가사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해에 나온 가사 《한생을 바쳐가자 다진 그 맹세》,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등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끝없이 따르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열화같은 지향과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한 성과작이다.” 『조선중앙년감 1949-2006』, 조선중앙통신사, p.340.

민족의 신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총련계 문학장에서 민족이 이야기-정체성을 떨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그들 시에 나타난 민족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전원 풍광으로 가득한 곳으로 묘사된 이유도 이 이야기의 힘 때문이다.

총련 시인들의 단행본 시집들을 거칠게나마 검토한다면, 민족이 ‘민족 이야기’ 속에서 경험되던 상기 경향은 1970-90년대 경에 이르러 가시화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 시기는 전 시기에 보였던 문예동 시문학의 극조적 교조성이 시의 언어미학적 감성과 적극 교섭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⁶⁾ 이는 총련 문예 내부에서 고향의 낙원 모티프를 공화국의 민족 담론 속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미학 서사 역량이 커졌던 시기적 배경과 연계돼 있다. 때문에 민족의 이야기 정체성이 부각된 시들은 - 70년대 전후 작품들을 수록한- 80년대 시집들에서 발견된다. 창작 능력이 확대된 1980년대에 문예동 맹원들의 시집 중 김윤희의 『내 고향』, 류인성의 『고향』, 『뜸부기 울면』, 『귀로』, 고봉전의 『애기별은 빛난다』 등에서 이 측면이 관찰되고 있고, 더 나아가 80-90년대에 발간된 허옥녀의 『산진달래』, 재일녀류 3인시집 『봄향기』 등에서는 모성 모티프와 연계한 민족의 무의식이 공화국 이야기에 의해 촉발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그들의 이주사적 차원을 고려할 경우에도, 문예동의 시에서 민족이 민족의 이야기 형태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맥락이 있었다. 일단 고향 및 거주지와 관련된 무의식을 처리하는 문제가 거기 있었다. 잘 알려진 것

6) 문예동 주류 비평가인 김학렬은 문예동 시문학의 1970년대를 “시문학력량의 확대”기로, 1980년대를 “창작의 양양, 발전”기로, 1990년대를 “시련 속에서, 창작의 심화”기로 정리한 바 있다.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재일 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회,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 추진위원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주체 학술대회 자료, 2004, pp.1-2.

처럼 그들 대부분에게 북한 땅은 고향이 아니었다. 가보지 않은 그곳을 귀국 사업의 명분으로 가보긴 했으나 정작 고향으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가지가 있어야 했다. 바로 그곳을 태어나 자란 고향으로 느끼게 해주는 노스텔지어였다. 민족 '이야기'가 고향 이야기로 작용하면서 그 역할을 해주었다. 다시 말해 공화국에서 순결한 민족의 신체를 발견'해야만' 하는 부담감은 수구초심의 향수를 공화국 이야기를 통해 부양시켜줄 때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노스텔지어를 생산해내는 일은 공화국을 의심할 수 없는 '고향'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했는데, 이는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는 '공화국≠조국(고향)'의 관계식을 망각케 하는 서사였다. 이 망각 기제가 작동하는 때는 주로 민족(고향)을 언급해야만 하는 순간이었고, 이때 과잉 서사가 발생했다. 이는 공화국의 낙원 이야기와 재일조선인의 낙원 이야기가 행복한 순환을 이루는 사태였다. 정신분석의 충동이론에 입각하더라도, 재일조선인에게 언어를 통해 지시되던 민족이 그 언어-기표 자체와 비슷해지는 순간은 '민족의 정체성'이 그 '이야기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순간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⁷⁾ 문예동 시인들에게 민족은 이야기에 의해 별충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증상-텍스트로 조금씩 나타났던 것이다.⁸⁾

민족을 고향의 낙원 모티프와 공화국의 민족담론을 통해 이야기 텍스트로 구성해내는 작업은 80년대 전후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이 경향은 동구권 사회주의 기반에 문제가 발생한 80년대 말에도 지속되었다. 공화국 체제의 약화는 그들에게 제공되는 민족 이야기 소스의 문제를

7) 다른 재일조선인 김리박 시인이 주재하는 『한흠(大地)』에서도 이 맥락은 여실히 드러난다. 최종환·김종희, 앞의 논문, p.299.

8) 지젝은 '고향'이 드러내는 상실 변증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고향’은 어떤 면에서 ‘고향상실 그 자체’이며 바로 부정성의 자유로운 운동이 아닌가?”,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p.25.

발생시키는 사건이었기에, 그 상황적 위험은 지난날의 이야기 관성에 의해 회피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는 민족 이야기의 사후적 생산물인 민족(의 정체성)을 공화국으로부터 수혈 받아가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했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들이 만난 민족이 순수하고 그리운 것일수록, 그것은 공화국 언어의 작동 없이 불가능했음을 뜻한다. 하여 문예동 시가 그러 보이는 ‘고향’이나 ‘조선’과 관련된 원낙원의 모티프들은 공화국의 이야기의 태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상기 경로를 류인성과 고봉전 시를 통해 다름으로써 ‘재일조선인 시’를 읽는 하나의 ‘읽기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⁹⁾ 이는 민족의 낙원의 모티프를 이야기 층위에서 반복함으로써 확고한 민족정체성을 ‘이야기정체성’(narrative-identity) 차원에서 경험해 온 문예동 시의 내면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문예동 시의 ‘이야기성’에 대한 학술적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공화국에서 꽃피는 강원도: 류인성의 시

민족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집착해 왔기에 문예동의 시들은 노스탤지어 가득한 자연 심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적어도 총련계1-1.5세대들에게 ‘민족’은 ‘흙내음’ 가득한 향토로 기억되었다. 하여 그 정황에서는 민족이 ‘낙원’으로 기억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아울러 당시 공화국 문예가 통일의 상상력을 서사화시키는 과정에서

9) 이 연구에 실린 ‘시’의 출처는 류인성의 경우 『고향』, 조선신보사, 1983, 『귀로(歸路)』(마당企劃, 1988.), 고봉전의 경우 『애기별은 빛난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87, 『제일 고운 꽃』(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이다.

그 낙원의 노스텔지어를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면서 문예동 그룹의 민족 기억과 공화국의 민족 담론이 하나의 이야기 차원의 연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것은 재일조선인들이 상상한 민족 기억이 순수할수록 공화국의 이데올로기를 내파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화국의 민족 담론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뜻했다. 이를 위해 문예동 시그룹 중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해 보이는, 매우 1인칭적 시를 쓴 시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류인성 시인이다.

총련계 1세대인 류인성¹⁰⁾ 시인의 시에서 고향 강원도는 공화국 현실과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무구함의 자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총련 문예에서는 이례적인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가령 “기억속의 귀로는 / 언제나 비탈진 언덕길이라야 하고/ 하늘엔 붉은 노을이 비껴야 한다”(류인성, 『귀로』, 『귀로』, 1988)라는 구절이 말해주는 고향 모습이 그것이다. 시인이 욕망하는 고향 길은 그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경험시키는 자리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던 그 원기억의 장소가 각종 식물들의 온기로 증강된 자리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인의 ‘귀로’는 그 시절 기억의 낙원으로의 돌아가기 위한 “제비”(『그리운 고향이여』, 『고향』, 1988)의 여정에 비견된다. 그런데 그의 시를 주밀히 읽는다면 이데올로기와 무관해 보이는 저 노스텔지어의 자리들이, 공화국이 건넨 이야기의 태줄 속에서 태어난 자리와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의 고향 시편들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증강된 민족의 전원이미저리는 그 태줄이 강원도로부터 기시한 것만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¹¹⁾

10) 류인성 시인은 1916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동리 337에서 1916년 3월 출생하여 메이지(明治)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니이가타현 조선소학교 교원을 지냈다. 시집으로 『고향』(1982, 문예동), 『땀부기 올면』(1987, 21세기산업), 『귀로(歸路)』(1988, 마당企劃)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앞서 본 「귀로」의 구절이 류인성의 다른 시편들에서 어떻게 변주되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어린 시절 강원도의 흙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는 그 시절 나무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그의 고향을 -민족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한다. 그는 『고향』의 3장에 「고향나무」, 「소나무」, 「뽕나무」, 「동백꽃」, 「감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무궁화나무」, 「해당화」, 「밤나무」, 「오동나무」, 「미루나무」, 「대추나무」, 「수양버들」, 「잣나무」, 「도토리나무」, 「앵두나무」, 「맷음시」라는 시들을 선보인다.¹²⁾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피붙이와 함께 거닐던 그 낙원은, 수령의 음성이 다가오거나, 공화국이 건넌 낙원 이야기가 연상될 때 더 큰 그리움의 자리로 나타난다. 이 나무 시편들의 논리는 대체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공화국 내음이 ‘거의’ 나지 않는 무구한 기억의 자리들을 그려나 가다가 ② 그 그리움을 증폭시켜 줄 공화국 언어를 간간히 노출하는 과정, 아울러 ③ 그 그리움이 공화국 언어에 의해 회복될 것을 믿는 단계.

아래 시들에 나타난 전원은 그의 원기억이 형성된 고향 강원도의 풍경이지만(①), 사실은 공화국 이야기의 프로그램이었음이 드러난다.(②) 마지막 작품에서 그는 민족의 삼천리 금수강산이 주체의 낙원이 펼쳐지는 공화국이었음을 말하게 된다.(③) 차례대로 살펴본다.

①

고향집 대추나무

올해도 열렸으리

가지마다 휘도록

11) 테리다의 대리보충론 전지에서 보면, 시인 류인성의 민족은 주로 남측 강원도의 전원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은 강원도가 아니다. 그 고향의 노스텔지어는, 민족이 아닌 공화국 측의 민족 스펙터클이다.

12) 『고향』 3장에 수록된 시의 ‘차례순’ 제목들이다.

총총히 열렸으리

꽃은 수줍어

사람들 잡든

달밤에 피고

남모르게 지더니

장마철에 열매들

가지마다 파랗게

물방울이 맺히여

반짝이더라

새파란 가을하늘 높아질 때면

한껏 빨갛게 익은 열매들

나뭇가지 흔들면

우두둑 어지고

치마폭을 펼치며

받아안은 동생아

지금도 고향집에 살고있는가

지금도 대추를 따고있는가

- 「대추나무」 전문 (이하 밑줄 : 연구자)

류인성에게 고향은 기쁨과 우수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페이스스의 자리이다. 그에게 고향은 돌아가야 할 모성의 품이 있고, 함께 살던 피붙이들의 기억이 선명히 자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마철에 열매들 / 가지마다 파랗게” 맺혀 반짝이는 “물방울”은 그 자리를 회상하는 시인의 눈물이다. 그 눈물은 “지금도 고향집에 살고있”을 누이를 향한 그리움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저 고향 풍경이 공화국의 이야기

의 구성물이라는 사실은 고향 나무의 모티프로 가득한 상기 『고향』의 3부를 -그 속 제목들과 무관한- 하나의 고향 시로 읽을 때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자연적 리리시즘으로 가득한 그의 고향이 공화국 이야기에 의해 담론화되어가는 상황이 가시화된다.

②

달빛에 배꽃이 흰한 마당에

명석을 펴고

마을로인들 모여앉아

백두산 장군별이야기 한창인데

구름속을 달리는 둥근 달이

밝았다 흐리었다 하고

달빛에 흰한 배나무우로 멀리

으스름한 산에서 쪽박새가

-쪽박 바뀌주 쪽박 바뀌주

처량하게 울더라

- 「배나무」 전문

먼저 본 「대추나무」라는 작품에 나타난 “사람들 잠든 / 달밤에 피”는 그 시절 수줍은 꽃들은 위의 「배나무」에서는 “백두산 장군별이야기”가 펼쳐지는 밤하늘 위로 피어난다. 이는 그의 시에서 강원도의 향토가 아름다운 낙원의 노스텔지어로 인각되기 위해서는 공화국 측으로부터 건네진 또 다른 민족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 이야기는 「배나무」에서 김일성의 항일민족 서사 형태로 나타난다. 나뭇가지 흔들어 치마폭에 밤알을 받아내던 그 시절(「대추나무」)의 자리로 가던 그 시절의 모습은, 「배나무」에서 “달빛에 배꽃이 흰한 마당에 명석을 펴고 마을로인들 모여앉”은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 “장군”이야기가 삽입된다. 같은 논리로 밤하늘의 장군 별은 “쭉박 바퀴주 쭉박 바퀴주” 소리를 내면서 “처량하게 울던” 그 시절 서글픔의 기억까지도 창출해낸다. 다시 말해 이 서글픔은 시적 화자의 실제 체험을 넘어 “장군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화국의 모티프에 의해 증폭된 인공 서정 속에서 구안된 역설적 기쁨의 정동으로 판단된다.¹³⁾ 다시 말해 이는 일본에서 유랑하는 지금-이곳의 땅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했던 뜨거운 그리움의 자리를 모색하기 위한 민족 이야기 구성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시인에게 강원도의 밤하늘은 “백두산 장군별이야기” 반복할 때 열리던 하늘이기도 했던 것이다.

-
- 13) 『문학예술』에 수록된 총련 시인들의 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인의 1인칭적 페이소스는 암묵적 금기로 작용해왔음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자의 판단이지만, 류인성의 시에 허용된 이 페이소스는 그의 시가 디아스포라적 감성을 미학적으로 드러내고, 그 아름다운 서정성의 유로를 공화국을 향해 헌사하고 있음을 내부 구성원들이 감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판단된다. 그럼에도 그의 시에 나타난 이 페이소스는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이야기라는 민족’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무의식적 ‘비애감’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고향』 3부에 가득한 나무 시편들 사이사이에 스며있는 페이소스도 이야기-민족이 초래한 무의식적 절망감의 한 발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본 『대추나무』에서 “나뭇가지 흔들면 / 우두둑 어지고 / 치마폭을 펼치며 / 받아안은 동생아 // 지금도 고향집에 살고있는가 / 지금도 대추를 따고있는가”란 구절은 공화국의 민족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고향을 발견하려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고향’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어째서 공화국이 건네준 민족 이야기를 얻어냈음에도 그는 민족을 여전히 찾아 헤매는 것인가? 이 질문 속에 그의 무의식적 페이소스가 감지되며, 그의 시가 공화국 주체의 시이면서 디아스포라 주체의 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타난다. 가령 『애호박』(1977.12.)이란 시에 그려진 할머니의 모습은 이 맥락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그는 통일의 열망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화국의 민족이야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무의식을 노출한다. 그것은 어떤 ‘아쉬움’의 정조와 결합하고 있다. “할머니가 심으신 조선호박 / 울타리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 참기름에 볶아도 주시고 / 새우젓에 지저도 주신 애호박 // 아, 이 아침도 노란 호박꽃 / 별들이 뱅뱅 날아다니는데 / 통일을 못보신채 돌아가신 할머니 / 할머니가 정말로 가없습니다” (『애호박』, 『고향』,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 1983.)

③

고향나무 시를 쓰면

끝이 없어라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삼십년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같이 겹쳐

고향이 그리워라

인적미답의 처녀립

구름도 쉬여가는

백두산의 수림을 헤치며

장군님 인솔하에

빨찌산이 싸웠고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

산천초목이 불타는 고지에는

한치의 땅을 놓고

술한 영웅들이 피흘려 싸웠어라

나라를 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은 조선이나

고향나무들이여

머리를 추켜들고 분노하라

오늘도 남녘땅을 더럽히고

나라의 분렬과

인민의 고통을 들썩우는

침범자와 그 졸개들을

썰어버리자

그리하여
아름다운 조선의 하늘과 바다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조선의
산천초목과 미풍량속을 되찾자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 「맺음시」 부분

『고향』 3부의 마지막 작품 「맺음시」에서 시인은 지금까지 쓴 나무 시편들의 의미를 종합하고 있다. 류인성은, 그 슬한 고향 나무들이 공화국을 위해 분노할 때만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원기억의 공간을 공화국의 이야기가 촉발시키기에, 그 공간은 “고향나무들”이 “머리를 추켜들고 분노”할 때만 복원된다. 고향의 나무 시를 쓰기로 하면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장군님 인솔 하에 빨찌산이 싸우”던 텍스트를 끝없이 응시할 때 가능해진다 는 논리이다. 3부의 ‘나무 시편’들을 작성케 한 주어(主語)는 공화국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그 이유로 “산천초목이 불타는 고지”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수행한- 김일성의 이야기는 머리를 흔들고 분노하는 나무들의 이야기와도 겹쳐진다. 여기서 고향 나무들을 모두 공화국의 나무가 된다. 이때 강원도 두메산 골은 “인민의 고통을 들썩우는 / 침범자와 그 줄개들을 쓸어버리”던 수령의 그 조국해방전쟁이 수행되던 “백두산의 수렵”과 같은 곳으로 경험된다.

순수하디 순수한 “고향나무들”이 “머리를 추켜들”고 분노하는 「맺음시」의 자리는 공화국으로부터 건네진 민족의 ‘이야기-기억’이 반복될수록¹⁴⁾,

14) 집단 기억의 사후적 생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그린비, 2011, p.20)과 해설부를 참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자는 총련 문예동 문학에서 작동하는 아스만적 기억의 생산 및 트라우마의 문제에 대하여 『총련계 재일조선여성시의 리미널공간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15(2015, pp.319-351)를 통해 개진한 바 있다.

민족(원본)이 공화국의 민족이야기(사본)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준다. 그리운 강원도의 흙길은 “수령님 달아주신 주체의 날개 펴” 나갈 때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리운 고향이여』, 『고향』, 1983)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시물라크르일 뿐이다. 전술한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론에 입각할 때, 이 같은 반복은 그 원환성이 거셀 수록 화자가 회구하는 민족의 원본(맨얼굴)을 보게 할 뿐이다. 류인성이 3부를 『맺음시』로 끝낸 이유는 그러한 반복이 결과할 ‘이야기-민족’의 사태와 만나지 않기 위함이고, 그래서 ‘민족-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에서 “맺음”의 의미는 “산천초목과 미풍량속”이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의 과업을 공화국이 ‘마무리’해 줄 것에 대한 기대로 읽힌다.

류인성의 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존재하는 그 시절의 대지는 때때로 주체조선의 기치가 선포되는 자리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에게 “까막 까치 울면서 / 바래주던 고개” “어려서 간키우기 장난하던 고개” “들국화 만발하고 / 산토끼 따라나서던” 그리움의 자리는 주체조선 건설을 위해 “으스름 밝아오는 새벽거리를 / 합작, 단결, 통일의 뼈라를 들고 / 동포를 한집한 집 찾아가” (『고향길』, 『고향』, 1983)야 하는 길이다. 그의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향을 번역하고, 그 우회로를 통해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자의 이야기이다.

Ⅲ. 대동강에서 출렁이는 제주바다 : 고봉전의 시

류인성 시인과 같이 시인 고봉전 시인¹⁵⁾에게도 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보충해 주는 기억의 자리가 있다. 유년 시절의 제주가 그곳이다. 그에게도 조국은

유년의 어떤 자리 속에 존재하는 낙원의 장소이다. 그렇다면 그 낙원의 자리는 그 시절의 추억에 잠길수록 더 선명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노스텔지어란 것도 류인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화국 언어가 선재(先在)하지 않으면 강하게 환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화국 측으로부터 건네진 낙원 이야기와 접촉할 때 환기되는데, 시인이 소년 시절 제주바다의 '기억'을 공화국의 이야기로 자주 호출해 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의 기억 안으로 들어온 제주도도 공화국의 시간성이 작동한 이후 출현한다. “여름이면 백사장 삼양의 푸른 바다 / 미역 감고 물장구 개구리헤엄에 / 세월 가는줄 모”르던 “꿈많은 어린시절”은 “서울의 북판에서 대구에서 /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져 / 레일은 부산 제주도로 / 원쑤의 무리우에 불벼락을 안”겨 주는 공화국 주체의 영예 속에서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다.(『잃어버린 고향의 젊은이들』) 전기적 사실을 참조하면 그의 유년은 “깊은 굴속”(『해빛』)과 같은 고통의 자리였다. 그는 서자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이별을 경험했으며, 조센징의 설움을 조선과 일본 각지에서 겪었다고 한다. 제주바다는 “기미가요마루”(『제주도는 내 고향』)를 타고 일본으로 가야 했던 물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한편에는 언제나 밝게 출렁이던 그 바다의 기억이 남아있었다.¹⁵⁾ 그의 시는 그 제주라는 낙원을 공화국

15) 고봉전 시인은 제주시 삼도리에서 1926년에 출생하여 제주시 북소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도일했다. 총련 히가시오사까본부 선전부 부부장 과 나카오사까초중급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애기별은 빛난다』(1987, 문예 동오사까지부), 동요동시집 『해님궁전』(1998, OSI) 등이 있다.

16) 시인 고봉전에게 민족은 류인성과 같은 공화국의 민족-이야기에 의해 대리 보충되는 텍스트이다. 총련 조직에서 ‘재일제주시인’으로 살았던 고봉전의 내면은 류인성과 그 대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특정 체제 담론에 분명히 귀속되지 않는 제주의 애매함은 그 애매성을 넘어서게 할 분명한 고향 이미지를 회구케 했고, 그에 상응하는 낙원의 이미지를 욕망시켰는데 총련 맹원인 그가 볼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공화국 측의 민족 노스텔지어였다. 이 과정에서 감감하고 환하게 다가온 소년기의 제주바다의 시정각적 이미지, 그리고 역동적인 그 시절 바다(파도)의 이미지는 천리마 건설장과 연계하여 작동되고 있었던 공화국의 민족담론과 손을 잡게 된다. 공화국 건설 사업

이야기를 토해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민족의 정체성은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확장태로서 ㉡조선의 넓을 이야기하는 장소에서 발현한다. ㉢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아- 잊지 못할 내 고향
 동백꽃 피고 까마귀 까치 우는 내 고향
 한없이 푸른 하늘 흰 구름은 오락가락
 맑고맑은 7색으로 수놓은 산과 들
 아침이면 젖처럼 안개를 흘려
 희망의 씨앗을 키워주고
 저녁이면 분홍색 노을
 황홀한 꿈세계로 이끌어주네
 아- 가고파라 보고파라
 목이 타도록 부르는 내 조국 내 고향이여!
 아- 이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이여!

《우리 조국은 멀지 않아 통일될 것이며
 우리 인민은 통일되고 부강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게될것입니다》
 수령님의 거룩하신 교시
 가슴깊이 새기고
 그이의 전사답게 조국통일로 달려나간다

- 「아, 내 조국 내 고향이여!」 부분

과 수령의 교시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그의 시편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 시절 제주 섬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대리함으로써 민족을 보충하려는 심리 그것임이 드러난다. 고봉전 시의 상기(上記)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최종환, 「재일제주인 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2, pp.99-103, 104-108, 113-115 참조.

고봉전 시가 묘사하는 고향은 “한없이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떠다니던 제주였다. 강렬한 바다의 기억 때문에 그곳은 여타 문예동 시인들이 그려보인 향토 이미지보다 낙원의 모티프가 한결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주는, 류인성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수령의 이야기(2연)가 들릴 때 다가오는 낙원(1연)으로 나타난다. “동백꽃 피고 까마귀 까치우는” 하늘, “맑고맑은 7색으로 수놓은 산과 들”의 자리는 그의 다른 시 『제주도는 내 고향』에서 “모래불”에서 울렸던 “배고동”(『제주도는 내 고향』)의 소리와 섞이면서 낙원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슴 뛰는 소리는 수령의 이야기(“우리 조국은 멀지 않아 통일될 것이며 / 우리 인민은 통일되고 부강한 조국강토에서 / 행복하게 살게될것입니다”)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들려온다. 여기서 그 시절의 제주 바다는 ‘항상’ 공화국의 바다였음이 드러난다. 그 시절 푸르고 정다웠던 제주 물결은 ‘대동강물’이 출렁인 후에만 출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래 시에서 보여주듯 “주체사상탑 불빛”이 흐르는 대동강변이 그 시절 제주 바다의 “파아란 물결”을 흔들어주는 것이다.

파아란 물결 타고 흐르는것 많아요

해빛이 흐르고 달빛도 흐르고

구름이 흐르고 꽃잎도 흐르고



주체사상탑 불빛 아래 흐르는것 많아요

- 『대동강가에서』, 『제일 고운꽃』, 2000 부분 (화살표: 연구자)

시인 고봉전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경험케 하는 또 하나의 계기는 자신이 ㉠‘조선’의 주체임을 각성하는 순간이다.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민족 교원이었던 그에게 조선은 한없이 순결한 민족의 말과 글로 출렁이는 곳으로

다가왔다. 때문에 이 조선이란 적어도 그에게는 제주바다의 변양태로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동포들이 결집하여 그러한 조선의 낯을 수호할 때 조선이 ‘조선’다워진다고 그는 믿었다. 그런데 이념과 무관해 보이는 그 ‘낯’이 무엇보다 순결해지는 시간도 북조선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때이다. 먼저 본 제주바다의 기억이 그랬듯 그에게 조선이라는 낙원은 공화국 이야기의 프로그램 속의 풍경이다.

대동강 앞에 선 그는 “그 꿈에 보던 사회주의사회리상촌이 / 여기 조선에 있다”고까지 말한다. 어린 시절의 낙원은 이 “사회주의리상촌”의 텍스트를 스치며 ‘진짜 낙원’의 리얼리티를 발한다. 시인의 무의식에 그 낙원에는 진짜 인간들, 새로운 인간들이 사는 곳이다. 이러한 민족의 관념은 류인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공화국의 언어로 작동한다. 일례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갔을적 / 코스모스 피여난 운수평의 하루는 / 한 얼마나 즐겁더냐 / 잠을 지새우면서 우리들을 돌봐준 / 안내원동지 / 너무나도 상냥스럽고 정다우면서도 / 노래 잘 부르던 운전수 동지의 / 성실함이여”라는 이야기는 그 같은 시에서 공화국을 “까마귀, 까치 울고 목란꽃 피는 이 고장엔 / 사람들 웃음으로 가득 차고 / 서로 돕고 이끌면서 / 일가단란 화목하게 지내는 / 새로운 인간들”의 이야기로 나타난다.(『대동강가에서』) 다시 말해 이 “새로운 인간들”이 존재하는 곳이 그가 믿는 무구한 조선이다. 이는 “까마귀, 까치 울고 목란꽃 피”던 유년이, 조선으로 확대되고 다시 그것이 이 이미 공화국에 의해 사후적으로 생산된 노스텔지어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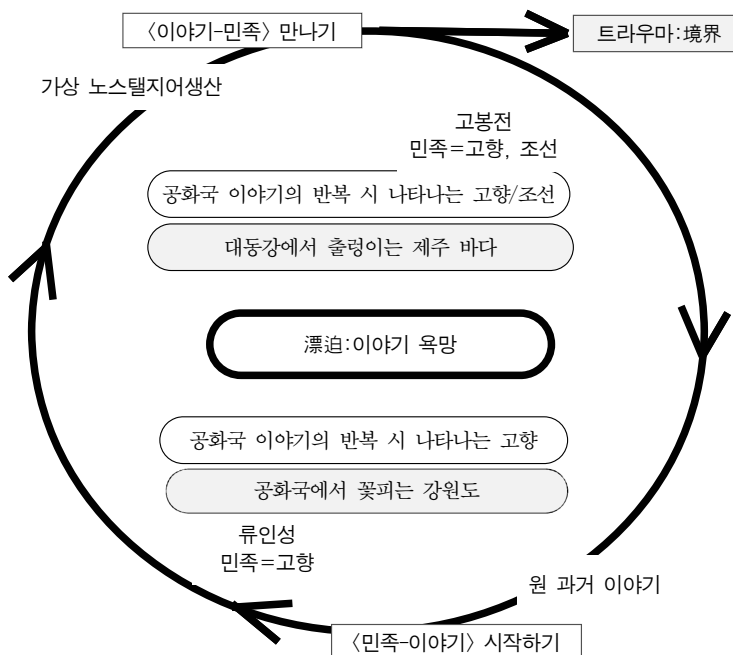
고봉전에게 조선은 수령의 훈시를 따를 때 열리는 어떤 ‘전망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전망은 공화국 건설(또는 공화국을 향한 재일조선인의 헌신)과 연계된 이야기 속에서 활성화된다. 공화국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체 조선’은 천리마를 통해 가능하게 될 미래의 조선 때문에 등장하는 사후적

대상이다. 빛나는 공화국의 '내일'은 속도전으로 건설될 통일 조선의 미래 이야기 속에서 현실화(現實化)된다. 이 가상적 현실은 그가 '보고자' 하는 공화국의 이야기 리얼리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남북이 각자 이념과 무관하게 화합할 수 있다는 문예동 주체들의 신념이 궁극적으로 공화국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타지가 공화국 측의 미래 담론에 입각하여 작동하는 것은 그 한 사례이다. 남측과 북측이 친선하여 만들어 나갈 민족의 참된 낙원은 공화국 건설의 보람과, 민족 교원의 영예, 그리고 백두에서 흘러내리는 공화국의 영생수를 경험할 때 가능해진다는 논리도 여기서 나오게 된다. 더 나아가 수령의 지도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 『조국방문의 영예 지니고』(1974)에서 말한 “사람마다 미소지우며 손 흔들어/ 혈육의 정 오가는 /다정스러운 조국의 벚들”도 “사회주의 새로운 인간”에 국한돼 있다. 그는, 이로 인해 열리게 될 민족의 전망을 자주 공화국의 “꽃”(『다시 핀 목란꽃』, 1999) 이야기를 통해 말한다. 공화국을 상징하는 “목란꽃”은 민족 교육에 헌신하는 고봉전이 피워낼 통일의 꽃이자 공화국의 신체가 한반도로 펼쳐지는 꽃이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만 경험되는 민족의 속성을 간취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같은 이야기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정동은 -이야기 과정에서 망각됐던- 유랑의 트라우마였다.¹⁷⁾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도 전날과 같은 공화국의 민족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그 반복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문예동 시인들이 있었다. 1,2세대 시인들이 전자라면 2세대 이후 시인과 《종소리》시지에 참여한 1세대 시인들이 후자였다. 이 정황 속에서 양 주체들에게 나타난 것은 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기시하는 어떤 경계(境界)였다. 이 경계는 남과 북 사이의 중간 지대에서만 파생되

17) 문예동 시의 디아스포라성과 그와 관련된 트라우마 문제는 최종환, 앞의 논문, pp.106-108 참조.

는 맥락을 넘어 상기 이야기의 반복이 결과한 디아스포라적인 공간이다.
이제까지의 연구 골자를 아래와 같이 도해해 볼 수 있다.



IV. ‘민족의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민족’으로

이 연구에서는 총련계 제일조선인문학이 견지해 온 ‘민족정체성’을 ‘이야기정체성’의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문예동 시문학을 읽는 ‘다른 틀’을 제공하려 했다. 문예동 소속 시인들이 이야기를 통해 작성한 민족 정체성은 총련 문예의 내적 논리를 다시금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들이 찾아다녔던 민족은, 주로 낙원의 노스텔지어로 가득

한 ‘고향’이나 ‘조선’이었다. 이는 공화국이 스토리텔링한 낙원 모티프들과 연계하면서 그들이 상상하는 민족의 아우라를 증폭시켰다. 이 맥락을 조명하기 위해 이 소논문 지면에서 주목해 본 시인이 류인성과 고봉전이다. 이 두 시인의 시는 ‘민족’을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반복’하다가, 다시 ‘이야기로서의 민족’으로까지 전회 시킨 뛰어난 사례에 해당한다.

류인성에게 유년의 고향은 공화국 측의 낙원의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민족적 노스텔지어를 환기한다. 그 그리운 장소는 공화국의 수령 품에서 꽃 피어나는 땅으로 나타난다. 고봉전 시에 나타난 민족 이야기는 ‘기미가요 마루’가 들어왔던 아픈 기억의 한편에 남아있던 빛나는 제주 바다가 주체 사상의 휘황한 물결로 출렁일 때 함께 출렁이는 텍스트이다. 고향으로 향하는 그의 길목은 그러므로 공화국으로 향하는 바닷길 속에서 조정된다. 유년의 제주 바다는 공화국 강산의 이야기와 겹쳐질 때만 선명하게 출렁이며, 이 사태는 그 바다의 명칭을 ‘대동강’의 자리로 개명시켜 놓는다. 바다와 관련한 낙원 모티프는 제주 것이었지만, 그 모티프의 주인이 공화국에게 민족은 공화국의 이야기 속에서 출현하는 낙원으로 된다.

상기 관찰은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시의 목가적 서정이나 낙원 모티프들이 분단이테올로기를 완충할 것이라고 인식해 온 종전 연구의 시각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2000년대 《종소리》지의 노스텔지어가 득한 민족의 모티프를 다른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시야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그간 국내 연구계가 본문화화하지 않았던 시인 류인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공백을 채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재일제주인 고봉전 관련 논의는, 재일제주인 시 연구에서 최종환이 강조했었던 ‘몸시학’의 가능성이나 ‘통일문화적’ 가능성에 대한 재조정까지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민족-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경험해 온 주체들이 ‘이야기-민

죽'과 만나는 이 트라우마적인 사태는 총련 문예동 문학이 한반도의 문학
 장 속으로 쉽게 견인될 수만은 없는 것임을 고지한다. 북한의 문학에 견인
 되는 이야기의 맥락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에 재현되지 않는 디
 아스포라적 페이소스로 나타나는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이 사안만큼은
 이 분야의 추후 연구자들이 정면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논문이 문
 예동 시인들에 대한 부정적 맥락만을 말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반도 역사의 한 피해자라고 믿는 본 연구자
 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공화국 담론과 연계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민
 족 이야기는 유랑의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의지 속에서 나타난 무의식의 자
 리이자, 금후 문예동 문학의 참다운 디아스포라적 경계를 여는 기표의 한
 저장고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종소리》(창간호~26호) 종소리 시인회, 2000.01~2006.04.
 고봉전, 『애기별은 빛난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오사까지부, 1987.
 ———, 『제일 고운 꽃』,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류인성, 『고향』,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83.
 ———, 『귀로(歸路)』, 마당企劃, 1988.
 ———, 『뜸부기 울면』, 21세기산업, 1987.
 한룡무, 『재일조선시문학사(1)-(12)』연재논문, 《한흠》 1995.4-2000.봄
 『조선중앙년감 1949-2006』, 조선중앙통신사, p.340.

2. 논문 및 단행본

- 강덕상, 정신성 외 공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상환, 『테리다의 글쓰기와 들뢰즈의 사건: 구조주의 수용의 두 양상』 『기호학연구』
 29, 2011, p.18, 41.
 김상현, 『在日韓國人-在日동포 100年史』, 한민족, 1988.
 김 철, 『갱생(更生)의 도(道) 혹은 미로(迷路)-최현배의 『朝鮮民族更生의 道』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28, 2005, p.334.
 ———,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상허학회, 『상허학보』17, 2006.6,
 pp.151-169.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재일 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회,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 추진위원회, 재일본조선
 문학예술가동맹 주체 학술대회 자료, 2004, pp.1-2.
 권택영 외, 『육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신형기,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생각의나무, 『당대비평』13, 2000.12, pp.189-200.
 ———, 『서사적 구축을 넘어서』, 문화과학사, 『문화과학』27, 2001.9, pp.113-129.
 ———, 『이야기의 역능과 김일성』, 『현대문학의 연구』41, 2010, pp.289-323.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2004.

자크 데리다, 김성도 역,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2010.

정인섭, 『재일교포의법적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최종환, 「재일제주인 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3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학회, 2009, 12, pp.99-103, 104-108, 113-115 참조

_____, 「총련계 재일조선여성시의 리미널공간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15, 2015, pp.319-351.

최종환 · 김종희, 「현대 자이니치 미디어에 나타난 민족담론의 한 가능성 : 『한흠(大地)』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제36집, 한중인문학회, 2012, 8, p.299 및 2-3장.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영신 역, 『집단심리학』, 학문과 사상사, 1987.

하상일,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 소명출판, 2011.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identity' in poems of Korean resident in Japan
- focusing on 'Paradise Motif' -

Choi, Jong-Hwan

In 1959, Korean Japanese of Consolidated Alliance of Koreans in Japan begin to focus more and more on the 'story of minjok' to support North Korea's first project to return Korean Japanese to Korea. They had been obsessed with the idea of 'minjok' and now there were immersed in it 'story'. Most of the stories were handed down from North Korea, which was supported by creative force of poetry of Alliance of Korean Artists and Writers in Japan. Since then, the poets of the 'Alliance' began to reiterate the story of Kim Il-seong and North Korea. It was because talking about North Korea as a paradise on earth made their memories of home clearer and more powerful nationality identity could be experienced. That is, at least at that moment, it was possible to invoke powerful nostalgia about the period of youth in Gangwon-do or Jeju-do. Minjok was an idea that had been thought outside the ideologically oriented Koreans in Japan and therefore expected to provide a prototype national identity. Therefore, it was a simulacrum of minjok that would appear only when discussing the story of North Korea, its carbon copy. The research uses as analytical method Shin Hyung Ki's 'Theory o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Derrida's supplement theory and approached the problem in the framework of 'story identity.'

In order to demonstrate the story identity, the poetry of Ryu In-seong and Go Bong-jeon, who were not studied extensively in previous literatures, were selected for re-examination. The place of youth is powerfully reminded in Ryu In-seong's poetry when the story of North Korea is told repeatedly. His hometown he wished to return to was Gangwon-do and it reveals its pure national identity only in the story of anti-Japanese revolutions against Kim

Il-seong. Likewise, Go Bong-jeon also drives into the sparkling sea of Jeju-do island in his youth only when he reiterates the story of North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to prove that ‘national identity’ in such experiences is not different from “‘story identity’” suggested above.

Key Word : narrative-identity, story, repetition, Korean resident in Japan, Minjok, diaspora literature, Paradise Motif

최종환

소속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전자우편 : ilvont@naver.com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
